<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 현대는 석유화학에서 손떼라!"

현대석유화학이 98년 5월7일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제2 컴플렉스 준공식을 가졌다. 현대정유의 BTX공장을 동시에 준공, 현대석유화학이 아닌 현대그룹의 이름으로 준공식을 가진 것이다.
축하해줄 만한 일일 것이다. 준공식에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이정환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도 석유화학 대표 자격으로 준공을 축하했다. IMF를 불러온 주역들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세영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 등 정씨일가가 참석했음은 물론이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현대석유화학 대산 제2 컴플렉스는 96년4월부터 40여만평의 부지에 총 1조3000억원을 투자한 것이고, 에틸렌 기준 55만톤 NCC를 비롯 LDPE 14만톤, HDPE 8만톤, LLDPE 8만톤, PP 20만톤 등 합성수지 50만톤을 생산한다. 현대정유도 벤젠과 P-X 각각 40만톤을 생산하는 BTX 공장을 준공했다.
현대석유화학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1 컴플렉스를 포함해 에틸렌 생산능력 100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88년 석유화학산업에 뛰어들어 10년만에, 본격적으로 공장 건설에 들어간지 8년만에, 본격가동에 들어간지 6년만에 에틸렌 100만톤 생산체제를 갖추었으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고 현대의 저력을 다시한번 온세상에 떨치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현대는 준공식을 맞아 생산물량 대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수출해 98년 9억5000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장별로 제품을 특화해 품질 및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게 된 것은 물론 이미 구축한 항만, 열병합발전소 등과 연계함으로써 컴플렉스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자랑했다. 옳은 말이다. 현대정유도 벤젠 및 P-X 생산물량의 80%이상을 미국, 중국, 대만, 동남아 등지에 수출해 98년에만 1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일 계획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또 BTX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SK, LG정유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는 삼성과 함께 석유화학 공급과잉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고, 1조3000억원이라는 투자비가 자체의 수익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부채 일색이라는 점에서 결코 축하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대는 80년대말에도 1조2000억~1조3000억원을 투입해 제1 컴플렉스를 건설했고, 91~ 93년 석유화학 불황의 원흉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거기에 또다시 1조2000억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초기부채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을 생산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애국심」을 늘어놓고 있으나, 지금에 와 현대의「사탕발림」에 놀아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출로 벌어들인다는 외화가 수익으로 연결되기는커녕 부채를 갚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IMF 주범」의 꼬리표를 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거창한 준공식을 거행하면서 국민들을 희롱하는 것을 보면, 정주영 일가의 뻔뻔스러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하기야 현대그룹이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그 단면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현대는 2002년까지 외자 85억달러를 도입하고 9개사를 그룹에서 분리하며 건설, 자동차, 전자, 중화학, 금융 및 서비스 등 5개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계열분리, 매각 및 합작, 청산, 경영철수, 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화학업종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묻고싶을 뿐이다.
정부는 은행별로「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구성, 은행별 여신이 100억원 이상인 대기업들은 △정상기업 △조건부 회생기업 △회생불능기업으로 분류해 회생불능기업에 대해서는 98년6월부터 여신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5월10일「국민과의 TV대화」를 통해 없애야 할 기업은 6월부터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석유화학은 바로「회생불능」에 해당하고, 석유화학산업을 망치는「망나니」이기에 그 첫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대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정주영 일가를 정리해고함은 물론 석유화학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화학저널 1998/5/18>